목포시, IT 활용 가로수 체계적 관리 '시동'

가지치기·수형 관리·부산물 처리 등 내부지침 마련하고 빅데이터 작업 전남 첫 '은행나무 불임처리'도 도입

목포지역에는 은행나무·느티나무·이팝나무·플라타너스 등 총 1만8300주의 가로수가 식재돼 도시경관을 이루고 있다. 가로수는 원도심에 은행나무 등 8종 1만주, 하당지구에 느티나무 등 8종 5800주, 옥암지구에 이팝나무 등 3종 2500주가 자라고 있다.

10일 목포시에 따르면 시는 이들 가로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가로수 관리 내부지침'을 마련, 체계적 관리에 들어갔다.

매년 2월이면 주요 간선도로와 상가 주변 가로수에 대한 전정(가지치기)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된다. 전정 작업은 가로수의 생육환경 개선은 물론 전선에 닿는 가지, 건물·간판에 닿는 가지, 도로 표지와 신호등을 가리는 가지 등을 제거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공사다.

그동안 강전정(과도한 가지치기)과 약전정에 대한 국토교통부 규정이나 지침이 없어 담당부서의 판단과 현장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돼 왔으나 이번에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됐다.

예를 들어 강전정 대상인 느티나무는 올해 나무를 자르면 그 다음해에 잔가지가 2~3개 나오고, 그 중 가지 1개만 남기고 나머지를 자른 뒤 이듬해인 2년 후에 약전정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왕벚나무는 썩어 들어가는 나무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강전정 대상에서 제외됐고, 은행나무는 강전정을 해도 그 다음 해에 잔가지가 많이 밀생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강전정을 하는 등 가로수별로 분류해 기준을 정한 게 특징이다.

이와 함께 목포시는 전정을 실시하더라도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해 가로수의 고유 수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정을 실시한다'는 수형관리 지침도 수립했다.

여기에 전정 작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임목 부산물에 대한 처리 지침도 세웠다. 목포시 소유 별도의 목재 파쇄장을 설치·운영하고 이 곳에서 우드 칩 등을 생산해 등산로와 둘레길 노면에 깔고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이후에는 목공체험용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관리 지침에는 은행나무와 관련해 그동안 제기돼 왔던 각종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담겼다.

현재 목포지역 가로수의 20%인 4000여 그루가 은행나무이고, 이 가운데 열매를 맺는 암나무는 600주인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들 은행나무가 백년대로·산정로·자유로·연산로 등 통행량이 많은 구간에 집중돼 있어 가을철 민원발생이 잦다는 데 있다.

기존 은행나무를 다른 수종으로 교체하는 데는 7억3000만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되고 환경단체 등의 반발도 예상돼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해마다 반복되는 은행나무 열매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전남지역 최초로 '적화제'(은행 열매 결실 방지제)를 살포하기로 했다. 적화제는 화분을 코팅해 꽃가루가 날리지 않고 암나무의 주두조직 코팅으로 수정되지 않도록 막는 게 주 효능이다.

목포시는 오는 4월에 개화 일주일 전, 만개 일주일 전, 만개 직전 등 3차례 적화제를 살포할 경우 발생량이 40~50%정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목포시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가로수는 시민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녹지로, 도시녹지 연결 축으로써 가로수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IT기술을 이용해 전산으로 가로수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가로수 빅데이터 작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가 이 같은 가로수 관리 내부지침을 수립하면서 별도의 용역을 발주하지 않고 공원녹지과 자체 인력을 활용해 만들었다는 점도 주목된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kwangju.co.kr

매년 2월이면 주요 간선도로와 상가 주변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가 진행된다. 전선·건물·간판에 닿는 가지, 도로 표지와 신호등을 가리는 가지 등을 제거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공사다.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전정작업이 시행돼 왔으나 이번에 목포시가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목포해경 해양사고 신속 대응 500t급 경비함정 추가 배치

목포해양경찰서는 서·남해안 해양사고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500t급 경비함정인 '태극 513함'〈사진〉을 추가 배치했다.

10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513함은 그동안 서해5도 특별경비단에서 서해바다의 안전과 불법 중국어선 6척 나포, 550여척 퇴거, 150여척의 차단 경비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첨병역할을 했다.

이번 목포에 배치된 513함은 전장 62.2m에 전폭 9.1m, 주기관 4대와 워터제트 4기가 설치돼 최대 35노트(시속 65㎞)로 기동할 수 있고,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해양 원격 응급의료시스템을 갖췄다.

또 20㎜ 발칸포와 50중기 1문, M-60 2대 등 무장을 탑재하고 있으며, 각종 해난사고때 신속 대응과 인명 구조를 위해 40노트의 속력을 낼 수 있는 3.2t급 단정 1대를 탑재하고 있다.

정영진 목포해경 서장은 "모든 승조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서남해안의 해양주권 수호와 국민의 생명·재산보호 활동에 최선을 다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목포시 청년시책 '안착'…지역청년 '정착' 돕는다

예비창업자 선발·종잣돈 지원·일자리 통합센터 개소 등 총력

목포 청년들의 취·창업 요람이 될 통합센터가 최근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7일 센터를 방문한 김종식 목포시장이 협업공간에서 작업 중인 지역 청년들과 만나 목포시가 추진 중인 각종 청년 시책에 대해 설명한 뒤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목포시가 시행중인 각종 청년 시책들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지역청년들의 목포 정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목포시는 청년층이 최근 3년간(2017~2019년) 매년 500명 이상씩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난해부터 청년정책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청년이라는 미래 성장동력 상실에 따른 도시경쟁력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며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와 청년 창업 등 지원 분야를 다양화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청년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목포시는 새해 창업을 꿈꾸는 예비창업자 20명을 선발한 데 이어 청년 창업자를 위한 종자돈을 지원하고 이들을 위한 별도 공간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쏟아내고 있다.

◇예비창업자 20명 모집= 목포시가 창업을 꿈꾸는 청년을 돕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예비 창업자와 창업 3년 미만 청년사업자를 모집한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하나인 이번 사업은 '청년 창업 아이템 사업화 지원' 10명, '청년창업 후속 지원' 10명 등 2개 분야에서 20명을 선발한다. 선정된 청년창업자에게는 1인(팀)당 최대 15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전문가 멘토링과 컨설팅도 제공한다.

◇청년창업자 '종잣돈' 지원= 목포시가 아이디어는 있으나 자금력과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특별 보증을 통해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이는 청년들이 창업을 희망하고 있으나 경험과 전문성 부족으로 생존률이 낮은 수준에 있는 만큼 시에서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자는 취지다.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 시비 2억원을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 이 금액의 10배인 20억원을 보증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예비 청년창업자를 비롯해 창업 5년 이하의 청년사업자로 목포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보증한도는 창업자금 3000만원 이내로 최장 5년을 보증하고 보증료는 연 0.8%, 보증비율은 100% 전액 보증된다.

◇청년·일자리 통합센터 개소= 목포 청년들의 취·창업 요람이 될 통합센터가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센터는 지역청년들이 목포에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과 창업·복지·문화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근거지 역할을 한다. 1인 창업실, 협업 공간(6인실), 세미나실, 취업 상담실, VR룸, 휴게공간, 셀프카페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센터는 또 공간 제공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활동가·관광 유투버 양성교육 등 창업 프로그램, 청년진로 역량 강화, 미니 채용박람회 등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kwangju.co.kr

목포해수청, 국가보조항로 여객선 운영실태 점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이달 초부터 다음달 말까지 두 달 동안 목포권 및 완도권 국가보조항로 여객선 14척을 대상으로 선박 관리·운영 실태와 선박수리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보조항로 선박의 여객실 청결도, 승·하선 설비 및 기관 관리상태 등을 확인한다. 또 선박 수리내역과 수리비 적정 지출 여부 등도 확인·점검한다.

점검 결과 부적정한 선박수리 내역 및 선박수리 상태 불량일 경우 보강수리 등 시정명령한다. 선박의 승·하선 설비 및 여객실의 청결도 등 선박 관리 상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하도록 시정명령 조치할 계획이다.

장귀표 목포해양수산청장은 "국가보조항로 여객선 정기 점검 및 위탁선사 지도·감독으로 관할해역 내 보조항로 여객선 관리, 낙도 주민 교통편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